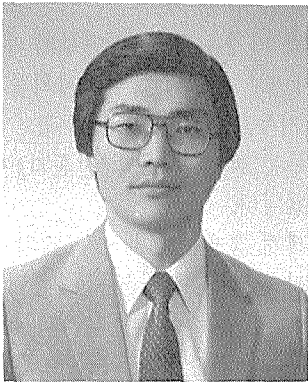




에너지절약을 위한 석유산업의 역할



李 福 載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실장〉

韓國經濟는 에너지부문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곧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이다. 1980년대말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經濟成長率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여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의 海外依存度가 1990년의 88%에서 금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리 경제의 露出度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또한 에너지 수입의 증대를 초래하여, 1990년 총 수입액중

에너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수준에서 금년에는 18%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국제수지 적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는 에너지 공급능력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부문에 있어 심각함) 이 결과 에너지 수급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에너지부문에서의 消費節約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에너지 절약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 (conservation)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留保 (preservation)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약은 불안한 국제 에너지시장 특히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능력의 확충이 立地問題, 財源拉保問題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經濟的 現實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시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國際收支 改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産業競爭力 強化의 수단으로서 에너지절약의 政策的 意味는 지대한 것이다.

에너지절약 특히 石油의 節約을 위해 政府는 우선적으로 精油會社 利潤에 관한 事後的인 營利制度 (精算制)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이 제도의 폐지는 국내 정유회사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의 과실을 정유사가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반 노력을 적극 촉진시키게 된다. 이 제도의 폐지는 油價規制解除와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또한 油價自律化幅의 증대와 함께 政府의市場監視機能強化가 요망되는바, 이때 시장 감시의 중요한 기준중 하나로서 “低油價水準” 보다는 “適正油價水準”이 적합한 것이다. 이때 적정유가수준은 국제석유시장의 위험과 환경오염등의 외부비용 (external cost)을 반영한 프리미엄을 국제유가(구체적으로는 *boyder price* 임)에 가산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油價管理를 통하여 物價安定, 産業競爭力強化, 그리고 庶民生活確保를 도모하고자하는 政策的인 者慮는 修正되어야 한다. 이들 政策目標의 달성을 위해서는 油價管理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채택하기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시장감시 대상으로서의 油價는 最終消費者價格이며 이價格이一定水準을 持續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특정시점에서 이 가격이 적정수준이냐가 감시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流通構造의 改善를 통하여 유통과정에서 석유제품의 品質과 量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시된 상표의 준수 (*pole sign* 준수),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제도개선은 유통구조를 보다 단축시키고 합리화 함으로써 석유제품 제조회사로 하여금 自社製品을 全流通過程에 걸쳐서 보다 효과적으로 管理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에너지절약, 특히 석유절약을 위해 국내 석유시장 참가자들은 우선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석유의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海上輸送 過程에서의 流出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 이는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해 더욱 긴요한 것이다. 석유제품 제조과정에서의 減耗率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저장·판매과정에서의 손실 극소화를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판매시점 정보관리 체계 (POS)의 보급이 적극추진 되어야 하며 政府에 의한

稅制上の 支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의 적극적인 추진은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事業範圍가 擴大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말해서 석유시장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석유시장은 원유의 생산 석유제품의 제조·수송·저장·판매뿐만아니라 석유제품을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에너지 서비스(열, 빛, 동력 등)를 제공하는 석유이용기기(보일러,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高效率 석유제품 이용기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다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 적합한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석유제품의 공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직접 공급함으로써 석유소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로서 석유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난방사업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요망된다.

에너지 절약은 이용기기의 효율화에 더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이용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예로서 한 건물의 에너지 절약은 각 이용기기의 고효율화 및 효율적인 운전과 빌딩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이결과 초래되는 에너지 비용절감액중 일정부분을 이윤획득하고 기업이 곧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바,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들 특히 정유회사들이 이 전문기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高效率인 동시에 보다 환경 적합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산업에 진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 진출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에너지절약 특히 석유절약, 즉 석유의 효율적인 사용은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에 대처하는 동시에 석유 공급능력 확충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한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가 채택 가능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석유소비의 효율화는 국내 석유산업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